

# 사면초가 몰린 軍... 인사단행·감사해명 부심

군당국이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함께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대한 대응 입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 전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군 인사 25명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또, 천안함 사건 당일 이상의 합참의장의 음주와 지휘통제실 이탈을 비롯한 보고 누락, 은폐, 낙장 보고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군이 퇴로를 찾기 위해서는 큰 폭의 '해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직면해있는 형국이다.

▷주초 대장급 인사, 인사폭 미궁=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이르면 14일께 이상의 합참의장 교체 등 일부 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록 이 의장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음주한 것은 아니었고, 충분한 대응조치를 지시한 다음 지휘통제실을 비웠다 하지만 군복을 입

## 합참의장 교체 등 대장급 포함 '물같이 폭' 관심 "천안함 징계자중 12명 형사처벌" 감사원에 반발

은 최고 선임자로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 이상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군심 수습과 사기 등을 고려해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바다 여론이 강해 정부와 군 모두 인사 폭을 정하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3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사를 주도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감사원 직무감사 대응수위는=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에 대해 군은 곧 공식 대응 입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하나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징계 대상자 중 12명에게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군 형법으로 다룰만한 잘못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학송 특위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김 장관의 입장이 쉽게 변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천안함 특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김 장관을 출석토록 했으나 그가 주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태는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국방부는 12일 주요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결론이 없이 난상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군이 대응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인사 시기가 폭,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입장 등 윤곽이 그려지지 않았다"면서 "군의 처지에서는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가 큰 병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마치 대립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역풍'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쟁 반대” 6·15 10주년 대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범국민대회 및 문화제’에서 전쟁반대와 한반도기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나로호 실패 공동조사 돌입

### 한·러 오늘 1차회의

한국과 러시아는 14일부터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공동조사에 본격 돌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은 13일 오후 나로호 2차 실패와 관련, “14일 오후 2시 고층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러시아 공동조사위원회(FRB)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는 2차 발사 후 처음 개최되는 한국과 러시아 간 공식 전문가 회의로서, 향후 FRB 운영계획과 지금까지 양측이 분석한 나로호 2차 발사 초기분석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앞서 수거된 부유물 2점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확인 결과 나로호 잔해물이며 우리 측이 제작한 상단이 아닌 1단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로호 잔해물에 대한 추가적 사항은 국제적으로 지켜지는 기술보호 관례상 더 이상의 공개가

불가하다”며 “양측 전문가는 비행데이터 분석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작업을 우선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이나 책임소재와는 상관없이, 시기만 문제일 뿐 나로호 3차 발사는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본부 조광래 본부장은 이날 나로호 2차 발사 실패를 놓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본부장은 “한국과 러시아 간 소형 위성발사체(나로호·KSLV-1) 개발사업 계약서에는 ‘책임소재’란 문구가 어디에도 없다”며 “3차 발사와 관련해 계약서 상으로 명문화된 조항으로는, ‘두 번의 나로호 시험발사에서 한 번이라도 임무에 실패하면 한국 측은 한 번 더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를 러시아 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서울 불바다” 北 전면 군사타격 경고

### 천안함 확성기 설치 관련...합참 “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우리 군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조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16년 만에 ‘서울 불바다’까지 운운해가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재개에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포고’를 발표하고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 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포고에서 “괴뢰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11개소에서 이미 심리전용 확성기를 설치했다”며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한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포고는 이어 “군사적으로 심리전이 전쟁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에 우리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

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북한군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중대포고’를 발표한 이후 MDL 일대의 부대를 대상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아직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방부대에 대북 경계강화 지침 및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감시 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MDL 일대 11곳에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한 대북 확성기를 설치 완료했다. 북한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공개 경고장’을 내고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 불바다’ 발언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했던 것으로, 당시 이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우리 정부는 이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했었다. /연합뉴스

## “도시환경 정비...무등산 옛길처럼”

###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옛길 복원 성공적” 평가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무등산 옛길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 자연자원을 활용한 무등산 옛길 복원방식이 향후 광주 도시환경 정비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 당선자는 “무등산 옛길은 자랑스러운 광주의 자산이며, 성공적인 시책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의 자연자원을 유지하고 이를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도록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에 따라 향후 민선 5기 환경정책은 도심 내 인위적인 녹지조성보다는 기존 자연자원의 파괴 최소화 및 효율적인 이용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구간에 이어 최근 3구간 조성사업을 끝내고 총연장 25.37km의 무등산 옛길을 일반에게 개방했다.

옛길은 무등산 자연 및 생태자원뿐 아니라, 절이나 유적지, 시가문화권 등 문화자원까지 있고 있어 이미 10여만 명이 넘는 시민·외지인이 찾는 광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땀류초

이제 비로소 진짜 마이비밀

마이비밀

이제 비로소 진짜 마이비밀